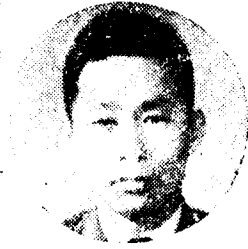


앞으로의 住生活

<Housing Problems of Up to Date>



김 희 춘 (서울대·공과대학)

Hi Choon Kim · Seoul National Univ.

【글 쓴 이】

주택은 생활의 그릇이다. 이 그릇들이 뭉여서 세계라는 큰 그릇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큰 그릇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가장 합리적인 생활계획이 조그만 그릇들에도 비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우리의 생활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이중생활(二重生活)의 단순화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집에서는 좌식, 밖에서는 입식(의자식)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생활이 마땅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에는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위선 이중생활을 초래한 원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

한국인은 재래식 생활의 안이성을 굳게 지키고 생활계획으로 오는 빈잡성을 필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생활문화는 개성이 새로 보편성이 적다. 그러므로 생활기술의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일본 정치하에서는 일본식, 해방후에는 서양식 방법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방에는 재래의 생활방식이 고수되고, 다른 방면에는 외래의 생활방식이 대립적으로 병용되어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하게끔 되었다.

이중생활은 그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저 양자의 장점만을 취하는 과거의 안이성을 버리고 생활의 단순화를 목적으로한 합리적인 새로운 양식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근로대중(勤勞大衆)에게는 그러하다.

이것은 국민적 과제로서 긴급히 해결할 문제이다.

2) 기거양식(起居樣式)의 통일

이중생활은 생활면에 있어서는 기거양식에서 가장 현저하다. 이것의 단순화의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좌식에의 복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입식(의자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국민 일반적 기거 양식으로는 비 현실적이다.

위선 두가지 방식의 비교, 검토를 하여 보면,

좌식의 결점

비 활동적이고 비 위생적이다.

이 결점은 현대 우리들의 생활이 지향하는 근본 원칙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결점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취사 세탁등에 머슴을 사용해 내리온 결과 가족에 대한 가사노동의 능률화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은 점이다. 지금

까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생활의 능률화에 대하여 무관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는 식모를 둘 수가 없을 것이며 식모를 두는 경우에는 역시 능률화에 대한 고려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입식의 결점

가) 사용 면적이 증대하다

나) 방의 용도가 고정됨으로 방수가 증가한다.

다) 가구비가 증가하고 건축비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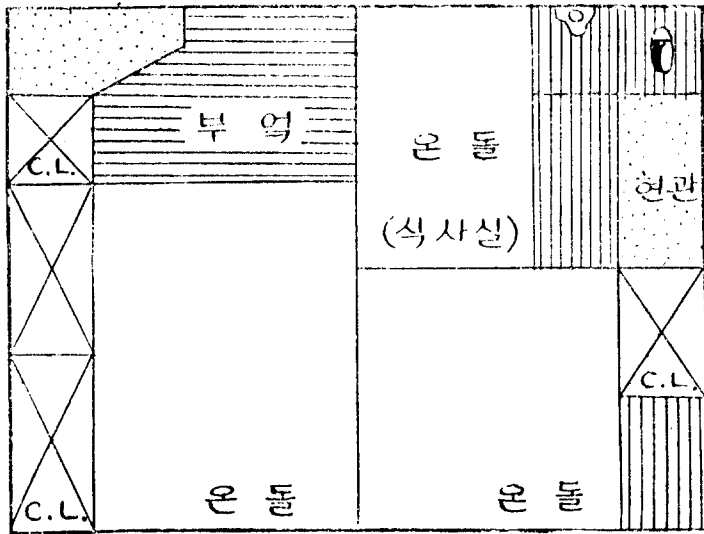
라) 난방설비가 필요하다.

마) 온돌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

이상 각 조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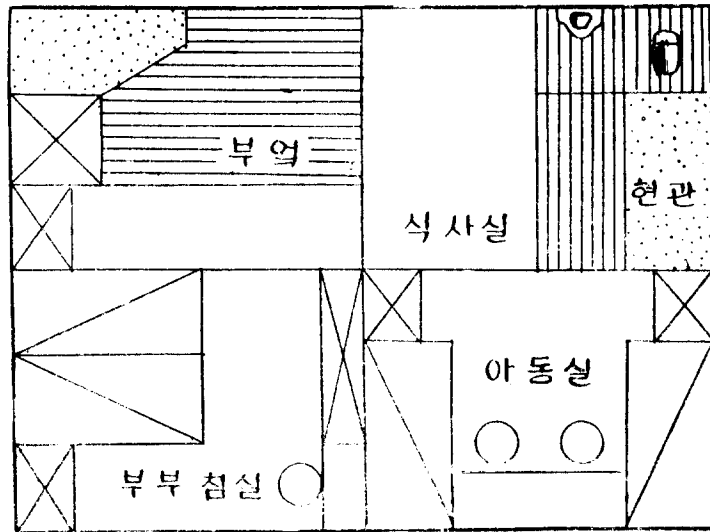
가), 나)의 결점——[방 면적이 커지고 방 수가 증가 하는 점]은 물론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채래식 주택의 벽장, 일본식 집의 도고, 마루, 중간복도 등이 입식 주

Fig. No. 1



건평 12평의 소주택 평면도

Fig. No. 2



전기 소주택을 의자화 한 평면도

택에서는 불 필요하게 됨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 주택의 예를 들어서 비교하여 보면 (Fig. No. 1 No. 2 참조.)

취침시의 수용능력은 양자가 동일하다. 아동실의 [베드]를 2단으로 하면 입식은 더욱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식사실은 의자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단히 협소하여 진다. 식사실은 식사, 가족의 단란(團樂), 접객등의 여러가지 목적에 쓰이기 때문이다. 9척×12척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게 되니까, 재래식 방의 8척×8척, 9척×9척, 9척×6척의 방에 비해서 1.5명 내외를 증가하면 된다. 이 문제도 그렇게 과대한 문제는 아니다.

다)의 결점——[가구비의 증가]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의자화(椅子化) 함으로 사실 더 필요한 가구는 의자, 탁자 그리고 침대이다. 다른 가구들 즉 의료수납가구,

식기장, 책상, 식탁등은 좌식의 경우에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의자, 탁자, 침대등이 건축과 동시에 사려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첨가 된다. 그 대신 방석등속은 불필요하게 된다.

일반의 인식으로서의 의자화 한다는 것은 미국식의 고급가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에 알맞는 튼튼하고 실질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그렇게 과대한 문제는 아니다.

라)의 결점——[난방설비]은 과거의 우리생활이 인내적 생활이라는 점에서 여하튼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온돌바닥에서의 채난(採暖)만으로는 도저히 방 전체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까지 높일 수가 없다. 또 개개별로 되어 있는 아동이의 난방 작업은 번잡하고 원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난방을 하기 위한 중앙공급식 난방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

제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이로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라는 점을 생각할 때, 비록 온돌의 형식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도, 마땅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마)의 결점**——[온돌에 대한 애착심] 이 문제는 성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종래의 관습에서 오는 것임으로 금후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해결 될 문제이다.

이상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서 입식생활의 전향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전향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방향은 입식으로 정하고 나아갈 것이나, 현 시기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경제적 빈약상과 생활양식의 급진적 변화로 오는 혼란과 고통등을 생각할 때 일부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침이라고 생각 한다.

그것은 가사노동 생활능률에 직접 큰 관계를 가진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엌, 식사실, 거실등으로부터 시작하고 침실은 온돌의 형식, 말하자면 좌식으로 그냥 두자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가구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다.

3) 가족생활의 추이

봉건사회에서는 주택은 소비의 공동체인 동시에 생산을 위한 공동체 였다. 이러한 가부권적 대가족제도를 이루게 된 것은 가족수가 증가하여도 생산대상의 발전이 따라서 오기 않는 관계라고 본다. 현대

자본주의 발전으로, 대량으로 공장생산화 하게 됨으로 대가족 속에 남아 있는 노동력을 뽑아 나아가게 되어, 가장(家長) 밑을 떠나서 별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의 구성은 생산면을 분리하고 소비면 만을 위한 공동생활체로 부부, 아이 발전하게 되었다. 한 가족의 구성은 다만 들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현대 가족의 특징은 가족의 규모 구성이 단순하다는 것과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남녀 동등권의 부부관계, 아이들의 독립, 그리고 또 부부관계가 아이들 관계보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은 과거 봉건사회 제도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이다. 특히 주부의 지위가 인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향상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대 가족 생활의 터전인 주택은 과거의 양식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 **주본위(住本位)의 소비생활 장소로 마련** 되어야 한다. 이것은——도시형 주택의 특징이다.

나) 원칙으로 소가족 즉 부부, 아이들로서만 구성되어야 한다.——소규모로 가능하게 된다.

다) 부부생활의 위주와 아이들의 자주적 성육의 장소로 마련하여야 한다.——공동생활체인 동시에 각 개인의 사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침실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부와 아이들, 또 아이들 끼리의 취침관습이 개량 되어야 한다.

4) 침식의 분리

식사실과 야간 가족이 사용하는 침실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식사실은 야간에는 그냥 공간으로 남겨 두자는 것이다. 이것은 주생활 방법의 개선의 중요한 기점이 될 문제이다.

주택은 가족생활의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요소 즉 사적 면과 공적 면을 다 같이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최소한의 주택을 생각하여 볼 때에 사적인 것은 침으로, 공적인 것은 식으로 나눌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침식의 분리만이 합리적인 주생활 확보의 재 일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벌써부터 서 있었던 것이다. 재래 한식 주택의 부엌에 달린 찬살, 또는 찬마루가 식사실로 이용되어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식사실을 야간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나 여러가지 이로운 점이 생긴다. 먼저 야간 통행에 타 가족의 침실을 경과 하지 않은 점, 둘째 중간 복도가 필요 없게 되므로 건축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점, 또 각 사실의 사이에 식사실을 뚫으로써 양실의 격리가 쉽게 되는 점 등이다. 그리고 이 식사실은 의자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5) 접객방식의 확립

우리나라 재래의 주택은 접객을 주요한 방식이 많다. 가족의 거주 조건을 희생시켜서까지 접객 본위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형식적인 것이며

주택은 가족을 위주로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과거의 봉건주의 사상에서 오는 의례적인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접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사교적 시설의 발달에 따라서 접객 사교 생활은 주택 외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방문객이 전리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족의 친구 친척은 그 가족의 단란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접객사교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소 주택에서는 식사실이 유일의 가족공동의 공적 생활 장소이니까 그 성격상 식사실이 접객의 장소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에 비록 침실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접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활 방침의 원칙이다. 침실은 끝까지 가족의 사생활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식사실이 협소한 경우에는 이 방마는 위선 확강한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접객을 겸하는 동시에 거실로서도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가족의 식사중의 내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식사시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라는 상식문제로서 크게 걱정 할 문제는 아니다.

이상 접객에 대한 문제는 그 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식사실을 독립 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6) 주생활의 공동화

종래 자기집 중심인 가족적[에고이즘]으로 자라난 우리들은 비 사회적 반 공공적

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벤취]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럽히고 부수고 하는 일 등이다.

그러므로 우선 개인과 가족과 사회 이 세 부분에 대하여 그 각 부분이 있을 위치와 그 사이의 관계를 옳게 파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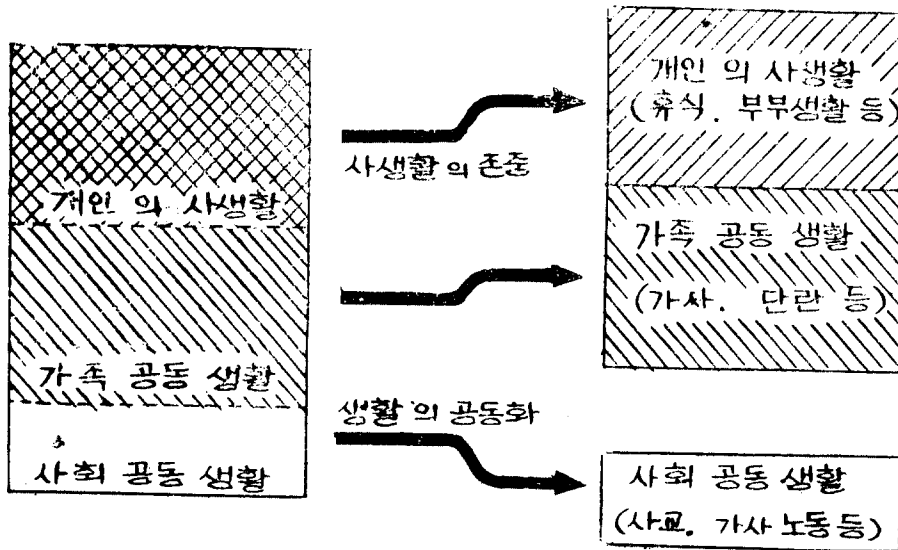
개인을 살리고 동시에 공공 연대의 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가족생활을 합리적으로 재 편성하여야 한다. 반 개인적인 동시에 비 사회적인 지금까지의 가족생활중 그 일부는 안으로 즉 개인에게 완전히 주고 다른 일부는 밖으로 즉 사회로 향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족생활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새로이 사회생활속에 편입할 부분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생활의 공동화 문제이다. (Fig. No. 3. 참조.)

Fig. No. 3

종래의 가족 생활

앞으로의 가족 생활



생활의 재편성

이렇게 생활을 공동화 함으로써 공공 연대의 정신이 그 과정에서 부지부식중에 함양 될 것이며 주부는 가사노동에서 해방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면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다대수의 주부는 매일매일 심한 가사노동에 시달려 휴양과 교양을 위한 시간이 없다. 물론 설비의 개

선등 방법으로 경감할 수는 있으나 어떤 든 가사작업을 공동화 함으로써만 완전한 능률 촉진과 또한 경비절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동화할 문제를 열거하여 보면,
 취사 조리의 공동화
 세탁의 공동화
 입욕의 공동화

육아의 공동화

7) 주택의 집단 공동화

생활을 공동화함으로써 공공 연대 정신이 함양되고 가사노동이 능률화 된다.

생활의 공동화는 구체적으로는 주택에 부대되는 여러가지 설비의 공동화에서 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결음 더 발전 시키면 주택 그 자체의 집단 공동화를 생각하게 된다.

일반주택 특히 도시주택은 그 자체로서 마는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육아라는 생활의 요소는 주 생활중의 기본적 하나의 요소이다. 이 요소가 과연 주택 내에서 완전히 영위될 수가 있는가 아이들은 놀이터를 찾아서 밖으로 심지어 행길로 쏠아 나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과 생활을 동시에 생각할 때에 하나의 주택만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동사회의 일부로

서 생각하여야만 합리적이고 건전한 주택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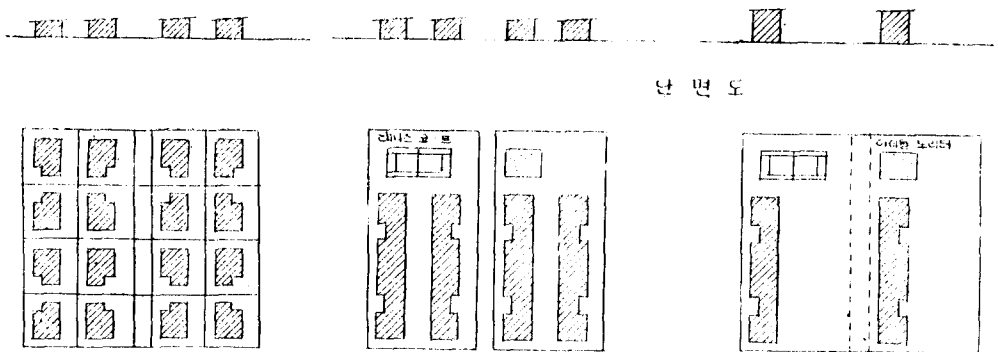
여기에 주택의 집단 공동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도시의 대지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거주 인수를 증가 시키고 넓은 공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선한 공기와 충분한 광선을 거주인 전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주택을 집단화 시키는 방법 뿐이다.

주택의 집단 공동화는 이와같이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뿐 아니라, 건축 자재와 경비의 절약을 가져오고 급수, 배수, 난방, 기타의 부대설비를 완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가사 노동등 여러가지의 공동화를 용이하게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집단 공동화는 각 개인의 공통의 문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여 공통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FIG. No. 4. 참조)

Fig. No. 4



16호의 주택 배치 비교도